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9호 【루게 제24762호】 주제 103(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인 로버트 지. 무가베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위원장 제1비서자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2일 꽃바구니가 진정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 동 소 식 을

###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오총총7면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부대의 전투정지훈련실태를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비행사들에게 생소한 비행장에서의 리착륙기동방안과 지형용 깊이를 연구학습시키는데 힘을 넣어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비행사들이 컴퓨터에 의한 비행조종습습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도 주의깊게 보아주시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것이 좋다고, 이와 함께 훈련기체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항공군사출발준비에 기본은 비행사들이 높은 비행술을 소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의 비행전법, 뺨쳐산식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며 비행훈련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캄보디아신문 《꼭 쓴매피엣》도 이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군인가족에게 솔소조종합동편을 편람하시었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혁명무장력은 결코 강위력한 현대적인 타격수단만을 갖추고있어 강대한것이 아니라 부사수들이 남편사수들결에서 뒤바

## 태양의 존함을 빛내여가는 미더운 선군혁명의 척후대, 후비대들

지난 근 3년간 많은 청년동맹조직들과 900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학생소년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수여

오늘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살며 투쟁해가고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척후대,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해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과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빛나는 영웅적 위훈을 세우고있는 청년들과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군위대로 튼튼히 준비해가고있는 모범적인 학생소년들을 시대와 인민앞에 적극 내세워주시었다. 주체 101(2012)년 2월 3일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많은 청년동맹조직들과 900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학생소년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하며 젊음은 그들에게 이하여 결정됩니다.》 위대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청년문제를 혁명과 건설의 선배를 후회하는 편견적문제로서 보시고 청년중시사상,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였으며 청년동맹조직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전위대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적극 내세워주시었다. 선군혁명의 후비대인 소년단원들을 대한 량양사업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조직을 당과 수령에게 붙잡아 충실한 주체혁의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소년단사업과 관련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고 우리 소년단원들에게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소년들은 배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로, 지도체제를 갖춘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들로 역세게 자라날 수 있었다. 주체 101(2012)년 2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장군님께서 승리에서 이끌어오신 청년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모범적인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은청년영예상을, 장군님께서 소년단조직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소년단원들에게 돌리 주신 크나큰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그들의 기록하신 존함과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라는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하시었다. 그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모범적인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학생소년들이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그들속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기 함을 간직하고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한 우리 시대의 참된 선군혁명전위들과 훌륭한 소년단원들도 있다. 2012년 6월에는 무더기비에 의한 사태로 집이 무너질 위험한 순례단 선군시대 청년동맹원의 빛나는 배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목숨써서 보위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청년동맹원의 빛나는 삶과 깨끗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신홍근 인공중학교(당시) 4학년 한현정학생에게, 지난해 11월에는 전투업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된 해군용사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2012년 7월 24일에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자칫한 불행으로 목숨을 잃은 김정은학생을 구원함으로써 선군시대 소년단원의 훌륭한 표본을 높이 발휘한 황해북도 름산군 름산소학교 4학년 조현철학생에게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위대하게 모시는 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청년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청년들, 문수물놀이장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장소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공헌한 청년들을 비롯하여 많은 모범적인 청년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이 땅위에 부강조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자

### 태양의 성지에 굽이치는 뜨거운 마음

지난 3년간 온 나라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56종에 7만 5 000여그루의 나무들이 새로 뿌리를 내렸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세계전 12월의 그날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맞고보던 지난 온 나날들은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어버이장군님께 변함없는 충정을 바쳐온 잊지 못할 날과 달들이었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자기의 뜨거운 뜨거운 지성을 바쳐왔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56종에 7만 5 000여그루의 나무들이 새로 뿌리를 내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뜨겁게 굽이친 이 충정의 마음과 마음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령도따라 이 땅위에 사위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온갖 지성과 정열을 다 바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며 수령님과 장군님에 태양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더욱이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56종에 7만 5 000여그루의 나무들이 새로 뿌리를 내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뜨겁게 굽이친 이 충정의 마음과

### 첨단에베르기절약형기술 연구개발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북공업대학 강좌장 김광림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이 인민경제적의가 큰 첨단에베르기절약형기술을 연구개발하였다. 이들의 연구사업은 리파대학 물리학부 연구사 로력영웅, 교수 박사 김유영동무가 적극 도우주었다. 내화강지역의 지도도에 이들 연구개발한 경량단열벽돌과 단열단열벽돌, 단열단열벽돌, 단열단열벽돌을 비롯한 공업기열로들에 반 아들이면 중전에 비하여 소가 열시간을 훨씬 줄여주어 막대한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 두기 열차단과 같은 경량단열벽돌은 남들처럼 값비싼 내화물재료를 쓰지 않고 공업폐물물질을 가지고 만든것으로 하여 매우 경제적이다. 평안북도과학연구원 일군들과 신의주공업연구소공정시험실 실장 김영봉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연구집단의 도입시험을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기계공업성의 해당 단위 일군들이 연구성과에 필요한 자체물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연구집단은 과학기술혁신사업소, 신의주방직기계공장에 나가 연구성과를 도입반파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있다.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3대혁명소원들이 이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갔다. 특파기자

### 감자포전들에서 흙갈이 진행

#### 대규모감자산지 전변되고있는 백암군 덕포지구에서

짜고있었다. 이와 함께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전투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백암군이 흙갈이전투로 부글부글 끓었다. 지난 4일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백암군 덕포지구에서 진행된 전투원들은 눈덮인 대지에 탄막을 전개한 다음 흙갈이를 표어들과 구호를 게시하고 지체없이 전투에 진입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첫날 하루동안에 163.3정보의 면적을 갈아내고 있다. 백암군 세봉농장 지구에 나간 대동농군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사면에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놓고 3시간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도당연립기업소

### 수백정보의 양식장에서 다시마모분산작업을 끝냈다

#### 서해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서해의 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다음해에 필요한 다시마작업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해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에서 총생산량에 따라 다시마작업을 바다환경에 적응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이 기본면적의 양식장에서 다시마모분산작업을 끝냈다. 결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서해의 드넓은 바다가양식장에서 다음해 더 많은 바다나물을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불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불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산의 배고고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여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야 합니다.》 올해 다시마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른 서해의 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다음해에도 풍요로운 다시마작업을 안아오기 위해 산악이 펼쳐나갔다. 수산성에서는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다음해 바다가양식을 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있었다. 성의



#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인자하신 어버이 그 영상 못 잊습니다



↑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8월  
→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0월



왕재산협동농장원의 집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3월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3(1984)년 3월

구룡령에서 성간군도로시설대 가족소대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8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1월

대흥단군종합농장의 제대군인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김일성종합대학 로교수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4월



어린이들이 창작한 서예와 그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1월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대흥국수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흰눈이여 말하라, 사무치는 그리움의 12월을

눈이 내린다.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마음을 더욱 적셔주며 수도 평양에 12월의 흰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바로 전달인 11월에 피눈물의 주제 100(2011)년을 못 잊어서인듯 소설무렵에는 진비로 땅을 적시고 마지막날까지도 찬비를 쏘던 저 하늘이 지금은 사연깊은 흰눈을 내리지 버린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세계전 12월의 흰눈의 무게를 안고 승엄하게 쉬임없이.

이제는 누구나 해마다 흰눈을 맞을 때면 너무나 뜻밖에 어머니장군님을 잃고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12월의 나날 산과 들에 허영없이 내리고내려던 강설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인민들과 연결하던 그 시각조차 흰 눈발 속에 열린 장군님생각에 초추지는 눈물을 금지 못했고 그리워서 가시는 길에 내리던 흰눈이 너무나 아슬아슬히 숨을 들이쉬는 듯이 느껴지지 못 할 그날에도 마음을 달린다. 그러느라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목이 메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는 마음을 견줄지 못하는 이 나라의 천만전사, 제자들이다.

눈내리는 날이면 우리 인민은 언제나 어머니장군님을 생각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하고.

준편했던 그 나날처럼 고지의 병사들을 찾아 눈덮인 어느 전선길의 아득한 협산준령을 넘고계시는것은 아닌지, 끝간대 없는 눈바다를 바라보시며 잊을수 없는 추억과 깊은 감회에 잠겨계시지는 않는지, 혹은 흰눈덮인 산속길을 조용히 거니시며 위대한 사색의 한초한초를 이어가고계시는지... 어머니장군님께서 흰눈을 밟으며 혁명의 수만리길을 헤치셨다. 세월의 모진 눈보라는 자신께서 맞으시고 인민들에게는 따뜻한 봄을 안겨주시기 위해 흰눈이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추위가 닥쳐들면 소리없이 내리고 내려 대지를 포근히 품어안아주는 흰눈처럼, 따뜻한 봄날이 오면 스프링클러가 고스란히 녹아 대지에 자양분으로 스며드는 흰눈처럼 끝없는 헌신의 한생을 사신 우리 장군님. 흰눈덮인 백두산일영고향집에서 탄생하시어 자기를 강그리 바쳐 생명을 더해주는 흰눈처럼 한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머니장군님의 그 눈보라강령의 력사가 숨이숨이 내리는 저 흰눈에 실려 오늘도 끝없이 흐르고있는것은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다 바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조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다! 달리는 철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과 같은 이 세상에 없습니까.》

자연의 흰눈은 겨울을 상징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12월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내리는 흰눈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12월을 전해주고있다.

무릇 12월은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달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12월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신분, 세상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완성이 자재롭고 고결한 덕망으로 빛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이 소중히 담겨져있다. 일찌기 백두산의 흰눈과 류타운 인연을 맺으시고 백두의 눈보라한생으로 위대한 헌신사를 수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그리움의 12월에 빛날치고있음을 이 땅에 내리는 흰눈은 소중히 전해주고있다. 이해에도 그리움의 첫눈이 내린 곳은 다름아닌 백두산이다.

지난 9월 20일 아직은 산과 들의 나무들이 미처 가을옷을 입지 못했던 그때 벌써 백두산에는 다가오는 겨울의 첫눈이 내리었다.

백두산, 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는 우리 장군님의 흰눈처럼의 뿌리가 내린 참다운 인생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의 탄생과 더불어 바로 여기에서 흰눈처럼 순결하고 흰눈처럼 정갈하며 흰 눈처럼 매일을 위해 자기를 바치시는 인생관이 력사상 처음으로 빛날 처음을 백두산의 흰눈은 얼마나 승엄히 전해주고있는것인가.

바로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이 나라를 포근히 감싸안는 흰눈이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류타운도 흰눈을 사랑하시었다. 그이께 있어서 흰눈에 대한 예찬은 곧 백두산에 대한 사랑이었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었다. 눈덮인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사나운 눈보라소리를 혁명의 교황복마냥 들으시며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흰눈과 더불어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력사에 깊이 새기시었는가.

백두산이 천출위인인 위대한 장군님께 처음으로 펼쳐드린것은 다름 아닌 백설의 눈부신 은빛세계, 소백수 골목의 장쾌한 설경이기에 오메전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택해주신 추억은 이런 내용의 글밭을 남기시었다.

나는 눈내리는 아침을 사랑한다. 손수건에 온 천지를 삼패함과 정갈함으로 덮어버려 하나의 동화적인 신비경으로 만들어놓는 이런 아침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본 황경이 온세게였기때때뿐일지, 아니면 어린 눈치 없는 장설에 첫 자욱을 찍었기때때뿐일지, 혹은 우리 조국의 력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때때뿐일지.

눈내리는 아침이면 나의 마음이 끝없이 달리는 곳이 있다. 그곳은 조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백두산이다. 지금쯤 아마 백두산은 장설로 뒤

덮였을테지. 천고의 밀림, 총포란이 울부짖던 결전장들도 하얀 눈속에 하루의 시작을 서두르며 새벽을 맞이하고있을테지.

아, 백두산! ...

이렇듯 백두산에 뿌리를 둔 우리 장군님의 흰눈에 대한 남다른 정서가 흰눈처럼에 대한 유명한 명제를 낳았고 그 고결한 정신이 절세의 위인의 눈보라한생을 판독하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흰눈이라는 말만 들어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짓는다.

세상에는 위인들의 한생을 두고 칭송한 말이 많지만 눈보라한생이라는 숭고한 삶의 노래, 인생의 총화를 남긴 위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해를 총화시으며 내리는 흰눈속의 12월이면 더더욱 신념을 초여 매시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찾아선군군위에 나서시었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였던 세계전 12월까지도 인민을 위해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면서 귀중한 하루 하루를 위대한 헌신속에 보내신 어머니장군님.

찬바람부는 추운 날에도 마다하지 않고 일요일의 휴식까지 바치시며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나는 개신청년공원원외회를 찾았었고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 중심을 돌아보시면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대 이어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결혼한 명도자, 물없이 흐르는 참관자들의 물결에 실려 여섯을 돌아보던 우리는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사철철차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차장을 통해 어머니장군님께서 사임하시다 잠시 자리를 떠났던것은 같은 철차집무실에 걸려있는 눈에 익은 잠바웃이 확 인격되었다. 지금도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체취가 풍겨오는 사연깊은 잠바웃.

세살은 아전술솜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수수한 잠바웃을 바라보노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민 누구나가 아전술솜과 부르는 잠바웃을 잊지 않았고 우리 장군님을 위한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이 되새겨져 격정을

인 조지까지 취해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12월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오라.

어머니장군님께서 잊지 못할 그 12월에 자신의 한생을 이렇게 총화하시었다. 눈보라속을 달리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며, 그래서 저 하늘에서 내리는 12월의 흰눈송이를 보아도 콧물비, 찬눈을 다 맞으시며 흰눈에 오신 어머니장군님의 로고가 눈물겹게 되 새겨지고 이듬에는 산기슭에 떨어진 눈덮인 길을 보아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전철차를 타시고 헤쳐가신 장군님의 강행군길이 더듬어져 눈시울을 적시는 이 나라 인민이다.

그렇다. 쉬임없이 내리고내려 쌓이는 12월의 저 흰눈의 무게는 어머니장군님을 못 잊어 몸부림치는 이 나라 천만전사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의 무게인것이다.

우리 인민은 어머니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서야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우신분을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장군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왔는가를 더욱 심정으로 새겨안았다.

피눈물의 그 12월을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수령생애의 12월, 맹세와 실천의 12월로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에만도 얼마나 위대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었는가.

어머니장군님의 한생이 어린 흰눈처럼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강성국가 건설의 생년길을 헤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의 세계에 떠날수록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혁명의 최전방을 초강도강행군으로 달리시며 선군조선의 만년태도를 위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혁명력사가 더욱더 즐기치게

흐르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결코 12월을 한해의 마지막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원력을 빛나는 헌신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와 더불어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의지가 어떤것인가를 깊이 새겨주며 12월의 아전철차, 인민행렬차는 백두의 행로, 선군계도로 오늘도 쉬임없이 달린다.

눈이 내린다. 백두산의 흰눈세계에서 혁명승리의 신념을 더욱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순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명에 어머니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축복의 꽃보라인듯 백두의 흰눈이 끝없이 내린다.

우리 장군님처럼 한생을 흰눈처럼의 세계에서 살라고 속삭여주며, 본사기자 김준혁



절절한 그리움으로 잠들 줄 모르는 수도의 밤하늘에 눈이 내린다. 본사기자 정성남 찍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 차지하였다.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은 한평생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직하신 드림없는 신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금도 풀치면 바다가 되고 쓸이면 하늘이 되고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면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습디다.》

주제 9.1(2002)년 8월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또다시 우리 인민을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며칠전 김일성상세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였다. 그날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러 똑 똑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평등자와 인민의 하나의 사상이 되고 공존 공생의 일심단결,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는 장엄한 화폭이 펼쳐지던 력사의 순간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5월 1일경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계속공연을 할 때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한결같이 구호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하시며 그날의 화폭을 추억같이 떠올리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그전에 진행될 당장전 55톤 경축행사때에도 수십만의 군중이 주석대를 향하여 경건에 넘쳐난 세를 부르면서 뜨겁게 환영하는 것을 보고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다시금 절절히 이야기하시었다. 인민의 환호성이 작지 들려오는 것 같으니 아직 이야기를 끝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지난 고난의 행

군시기 우리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었다고. 그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굽 으면서도 오직 당만을 믿고 따랐으며 당과 생사명명을 같이하였다고 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똑같은 유색을 대신하고 구운 감자 달걀로 끼니를 에우시면서 어머니장군님께서 맡 기고가신 사랑하는 인민을 하루빨리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세상에 부럽없이 사는 강성국가에서 살게 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가시고 눈비가 오고 폭풍이 휘몰아쳐와도 헤치고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 정령 기틀 때도 인민, 피로물 때도 인민,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엔 오직 인민뿐이었다. 인민은 우리 장군님의 사색과 실천, 행동과 기쁨의 전부였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거듭 이야기하시었다. 하기에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속에 태양승종의 노래를 부르고부르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사람도 산천도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끝없이 설레이는 12월, 장군님과 함께 맞고보던 행복한 나날들이 예뻐만 안겨오고 그럴수록 보고 들는 모든것이 우리 장군님의 한생에 대한 소중함 추억속에 뜨겁게 내전하였다. 얼마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을 때가 바로 그러하였다. 물없이 흐르는 참관자들의 물결에 실려 여섯을 돌아보던 우리는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사철철차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차장을 통해 어머니장군님께서 사임하시다 잠시 자리를 떠났던것은 같은 철차집무실에 걸려있는 눈에 익은 잠바웃이 확 인격되었다. 지금도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체취가 풍겨오는 사연깊은 잠바웃. 세살은 아전술솜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수수한 잠바웃을 바라보노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민 누구나가 아전술솜과 부르는 잠바웃을 잊지 않았고 우리 장군님을 위한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이 되새겨져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결혼한 명도자, 물없이 흐르는 참관자들의 물결에 실려 여섯을 돌아보던 우리는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사철철차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차장을 통해 어머니장군님께서 사임하시다 잠시 자리를 떠났던것은 같은 철차집무실에 걸려있는 눈에 익은 잠바웃이 확 인격되었다. 지금도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체취가 풍겨오는 사연깊은 잠바웃. 세살은 아전술솜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수수한 잠바웃을 바라보노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민 누구나가 아전술솜과 부르는 잠바웃을 잊지 않았고 우리 장군님을 위한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가슴뜨거운 추억이 되새겨져 격정을

어머니수령님께 제긴강행군을 새도 마른해드리시며 자신께서는 수령양분을 입신해주시었다. 인제인가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았던 우리는 그곳 일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임하시던 잠바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잠바웃을 전수해주시나 다름없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한평생 잠바웃을 입었다고 말씀하곤 하시였습니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이런 가슴치는 사연이 새겨져있었는가. 지금도 그러보라던 색바랜

잠바웃처럼으로 하루동안에만도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며 는 나라 인민을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도현지지도의 자욱이 눈에 삼삼 밟혀온다. 세상사람들을 감쪽 놀래우며 1만프래조를 제작한 통성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김철과 무산, 김덕과 단천, 락원

잠바웃을 입고 군인들을 찾아가신 이야기, 줄을이 흘러내리는 땅에 옷이 꼭 젖은 그이의 모습이 수록되어있는 영화무현의 눈물겨운 장면들이, 세계전 12월 영결의 거리를 눈물로 적시게 하던 잠바웃처럼의 우리 장군님의 태양상이 지금도 뜨거운 격정속에 안겨온다. 옷에는 시대의 풍조와 함께 인간의 정신적품도와 도덕적덕도, 그의 인생관이 비친다. 금수산태양궁전 사철철차의 잠바웃. 그것은 어머니수령님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신념을 품지 않으시고 강행군 길을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생애의 상징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잠바웃에 아전술솜을 입으시고 아전철차를 달린 우리와 김정일동지, 그의 거룩한 모습이 수천수만의 전사들에게 가르쳐주고있다. 조선의 혁명가들이여,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마음의 땅에를 놓치지 말고 살며 투쟁하자. 우리 장군님의 아전술솜을 영원히 잊지 말자. 본사기자 백영민

## 명월구회의정신은 세기를 넘어 굳건히 이어지는 혁명의 피줄기

은 한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 어떤 신념과 의지를 느끼게 되는것인가. 총대, 총대가 강하여 한다! 총대를 부강번영할 사회주의 조국의 매일과 인민의 행복이다. 총대의 귀중함을 초초의 병사들에게 두들지 않는 신념으로 새겨주시기 위해 불같은 헌신의 로고를 비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최후순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국의 현실을 대할수록 80여년전 명월구에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이 여려와 심장을 세계에 뽐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가름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을 도입하고 최후까지 무장투쟁의 의지가 확인되었다면 명월구에서는 그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이라고,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에 일체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1931년의 겨울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혁명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

겨울명월구회의가 열릴 당시의 정세는 참으로 엄중했다. 일제는 그해에 9.18사변을 일으키고 만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후방의 안전》을 부르짖으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폭압의 도수를 더욱 높여갔다. 이 엄중한 정세속에서 무장투쟁의 개시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존비사업을 면밀히 갖추어 기초하시어 주제 2(1931)년 12월 16일 열렸던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들의를 소집하시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빈부라 귀, 권과 권과 권과 권을 가리키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무장투쟁에 총동원하도록 하시며 총정치는 사람은 총을 내고 총을 쏘는 사람은 돈을 내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전진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총력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우리 인민단체의 힘은 온 손에 무장을 들고 일체 침략무력을 격멸소탕하며 유격전적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무장투쟁을 벌어나가는데서 우리는 중요한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던 우리 수령님.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력의 2대요소인 하나인 무장을 갖추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었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요!》 라는 구호를 제시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는 동시에 자체로 무기를 만들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침은 우리 인민자신의 힘과 투쟁으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려는 백두산전선위인의 투철한 주체적립장과 철석같은 신념의 발현으로서 온 나라 인민을 항일전선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고부적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회의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것은 무엇인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유격전적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때 대한 방침 제시, 이것은 비합법적인 것과 과학적인 통찰력을 완벽하게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수 있는 통창적인 방편이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은 곧

겨울명월구회의의 기본정신을 관철하는 피어린 투쟁과정이었으며 이 회의에서 제시된 무장투쟁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한 인가를 뚜렷이 확증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력사적인 겨울명월구회의와 더불어 우리 인민은 항일전쟁의 총성을 높이 울렸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 력인 반일민족유격대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우리 인민은 백두산장군의 명도령에 총대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으므로 총대로 미제를 격멸소탕하고 력사적승리를 떨치며 멀리 전진하였다. 무장에는 무장요! 어머니수령님의 이 투쟁리념과 원칙은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정신을 즐기차게 이어가시는 또 위대한 선군정치가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에서 더욱 빛나고있다. 그이께서 계시어 언제나 배심 든든하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자랑스럽게 펼칠수 있도록 하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용감하고 슬기로운 애국선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점차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일깨워주시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인투쟁과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전광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밝은 미래로 향해가는 천만대의 힘찬 보폭에 발을 맞추면서 군혁명위업의 계승자, 믿음직한 후비대가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선단만이 힘있는 혁명적 계승자들이 일떠세워진것은 함없이 숭고한 후대사람, 미래사람을 찬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은혜로 품이 있었기때때뿐입니다.》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소년운동을 중시하시고 조직된 소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강철의 소년혁명가들로 키워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모습이 승엄히 안겨온다. 화성의 속을 중되 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 김일성의 청년학생들속에 들어갈 정성을 품으시고 화성을 떠나 무성에서 들리시었다. 당시 무성 소년들의 대부분이 앞날에 대한 리상과 도부기가 없이 살고있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용감하고 슬기로운 애국선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점차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일깨워주시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인투쟁과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전광남

이 키워졌다. 조선인김일성소년회, 소년탐험대, 소년선봉대와 항일전쟁의 모험속에서 태어난 아동단과 소년총대 그리고 해방후 창립된 조선소년단은 다 우리 수령님의 소년운동중시사상의 자랑스러운 산이었고 새날소년동맹의 역력 뿌리에서 자라났다. 오늘날도 9살의 나이로 영생하고있는 아동단원 김금순, 최후의 순간에 자기를 쓸 총알을 유격대에 보내달라고 하여 적들을 전멸케 한 전기곡, 기쁜날 조국해방전쟁기에 용감하게 싸운 소년구대원들도 자랑스러운 소년혁명가들이었다. 정령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은 주체적조선소년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고고성이었으며 이대로부터 조선소년운동은 역세고도 깊은 뿌리를 가진 혁명의 피줄기, 위대한 전통을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이 고귀한 전통을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세웠다. 당과 수령을 총직하게 만드는 것이 조선소년운동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제일생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혁명명도의 전기간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빛내어나갈수 있도록 결을 이끌어주시던 어머니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어찌 잊을수 있오라. 백두의 피줄기를 역세게 이어주시려 아들이 매어드린 붉은

벚타이를 심장속에 고이 간직하시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준엄한 선군의 길은 또 얼마였던가. 피줄기 끊기면 생명을 잃듯이 혁명의 피줄기가 온건이러도 끊어지면 혁명의 명맥이 끊긴다. 우리 천만단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조선소년단원들의 68봉정 즉 조선소년단 전격원합단체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소년단원 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며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애에 휘날리며 혁명의 피줄기를 뜻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 후대들의 밝은 모습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는다고, 우리 소년단원들은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조국의 귀중한 보배물이라 하시며 우리 원수님 편지시 사랑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그 사랑, 그 믿음은 전체 소년단원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자랑만 되고 해발이 되어 주체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더욱 굳세게 하여준다. 정령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소년단원들은 오늘날 매일도 배워도 날것인 붉은기를 역세게 휘둘러며 혁명의 피줄기를 뜻없이 이어가겠기다. 강원남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 조선인민내무군 청년전위들의

### 웅변 및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내무군 청년전위들의 웅변 및 맹세모임이 14일 이른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강철훈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인민보안부 일군들과 조선인민내무군의 청년동맹조직일군들, 청년동맹원들이 참가하였다.

김계 토로하였다.

정치군사적영역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시며 혁명의 총대로 백승을 떨쳐나가실 드림없는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선언하신 령도의 슬기와 당력에 대한 웅변 《어은동의 총성》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2인시 《같이 빛나라 어은동의 40여일여!》, 어은금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함창시 《영군봉 우러러 다지는 맹세》 등에서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군사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무력건설사에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합창일 조선인민내무군 청년동맹 위원장이 선창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선창에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에 혁명의 총대로 역세게 받들어 나갈 충정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걸사위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인간관에 주신 유훈을 걸사관철하였다.

우리의 혁명의 준엄한 대원수들께서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보위해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천경, 만경의 성새가 되어 걸사용위하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도체제, 령군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군기로 틀어쥐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가는 청년결사대, 청년돌격대가 되겠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을 쇄소리나는 전투대로 꾸리며 당의 령도따라 언제나 곧바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총진군대로의 척후대가 되도록 하겠다.

맹세문을 내무군의 모든 청년전위들이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무엇때문에, 붉은 맹수가 되어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나갈 그들의 역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배투령장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슬기, 고매한 품모를 깊이 전하는 령도의 땅에서 뜻깊은 모임을 가지게 된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선군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뜨거운 격정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입장하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인민내무군 장병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소리가 령군봉의 하늘가로 세차게 메아리쳐 갔다.

《위대한 병사》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출연자는 군사야영의 나날 1초대 1분대 대원수님도 계시면서 병사생활의 소중한 모범을 보여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고매한 품모를 감명

## 농업근로자들의

###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지켜가며 농민들의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와 어깨를 끼고 어깨를

강조하였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에 어디 가나 종자혁명의 원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나라의 토지가 천지개벽되었으며 자연흐름식물들이 도처에 뻗어가는 것과 함께 대규모의 파수비가 펼쳐진 대에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민들이 알곡 정모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농업부문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조직전진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감과 임무를 다하도록 뜻깊이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고 강조하였다.

무장하고 어버이장군님께서 농업부문과 농민사업부문에 주신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길 농민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안북도농민위원회 위원장 최광남, 태천군 은흥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정호, 농업근로자 박갑남이 토론하였다.

천제적인 예지와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민족혁명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쳐 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조국정상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아버이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업혹한 속에서도 초강대국강령으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이끌어 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었다고

고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3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언제나 우러르며 그이와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여 온 나날이었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 총련중앙강연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강연회가 13일 도코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강연회에는 허충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들, 국장들, 제일 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총련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과 일군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특화강연은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현생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처럼 인민의 아들이 되시어 인민사회의 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레일도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무궁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을 깊이 새겨안으며 장군님의 령도따라 기어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끝까지 관철할 신념과 의지

### 평안북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나라 친만군민의 가슴속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해만지는 12월이다.

키워주고 내세워 주신 락원의 8명 당원들이 서있었다.

도 수천m에 달하는 3호제방성토공사와 수천㎡의 장식공사, 방대한 배수공기차입공사를 해결하는 자랑한 로력적유훈을 창조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들으며 울리며 산소분리기제작 전투를 힘있게 벌려 받은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장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도전간석지 3호제방성토공사를 줄기차게 내밀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들만이 아니다.

## 총련중앙사진전시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서거 3돐에 즈음한 총련중앙사진전시회가 13일 도코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주체조선의 강성부흥과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찬 삶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 주셨으며 총련일군들과 제일조선인 총련을 한식출로 풀어 안아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들려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최전선초소를 대건설전투장소에 돌출주야의 현수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조국방위에 인민의 품과 피사가이 꽃피는 찬란한 현실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총련과 제일조선인들이 얼마나 잘 결혼한 위업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한없이 그리움속에 더욱 깊이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여 나갈 결의에 넘쳐 있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장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도전간석지 3호제방성토공사를 줄기차게 내밀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들만이 아니다.

또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한 철에 친만군민을 불러일으키고 조국혁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그들은 총련과 제일조선인들이 얼마나 잘 결혼한 위업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한없이 그리움속에 더욱 깊이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여 나갈 결의에 넘쳐 있었다.

그들은 총련과 제일조선인들이 얼마나 잘 결혼한 위업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한없이 그리움속에 더욱 깊이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여 나갈 결의에 넘쳐 있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장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도전간석지 3호제방성토공사를 줄기차게 내밀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들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온갖 지성과 정열을 다 바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대양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날에 심장으로 다진 결심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 두불을 타듯 울려나가는 뜨거운 것이 오싹을 적시었다.

《이 몸이 한층의 거름이 되어 서라도 태양의 성지를 보다 숭엄하게 꾸릴수만 있다면 내 그 무엇을 주저하랴.》

이날에 심장으로 다진 결심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 두불을 타듯 울려나가는 뜨거운 것이 오싹을 적시었다.

이날에 심장으로 다진 결심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 두불을 타듯 울려나가는 뜨거운 것이 오싹을 적시었다.

이날에 심장으로 다진 결심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 두불을 타듯 울려나가는 뜨거운 것이 오싹을 적시었다.

이날에 심장으로 다진 결심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 두불을 타듯 울려나가는 뜨거운 것이 오싹을 적시었다.

## 래양의 성지에 바쳐가는 총정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동남현동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잔디밭에 피뎀을 흙에 하나의 잔자갈이라도 섞일세라 마음출 때에도, 흙구이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내세울 때에도 그는 대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는 태양의 성지입니다.》 그 한마디가 돌격대원들에게 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그 한마디가 돌격대원들에게 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훌륭히 꾸리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친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감사문을 보내 주셨다는 소식을 접한 동남현동무는 목에어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러가려는 총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러가려는 총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러가려는 총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 있었다.

수령생생위업실현의 위대한 세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이 꾸러지던 때였다.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동남현동무는 당조직의 믿음속에 구명돌격대를 책임지고 공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지나가나 그리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삼가 인사드리시는 동남현동무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동남현동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동남현동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동남현동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동남현동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동남현동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 미국의 전횡과 인권유린행위, 부패상을 폭로

## 미국 공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즈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

【평양 1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공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즈는 14일 인민문화회관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미국공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즈가 발언하였다.

그는 자기의 요청대로 기자회견을 조직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미국 텍사스주 엘 파소에서 나서 자란 미국시민이며 현재 29살이다.

나는 조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다. 위험을 나는 남조선에서 한강을 건너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하여 나는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이곳에 오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참다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국주의세력의 랑락적인 영향으로부터 자기 인민을 영예롭게 지키고있다.

이로부터 나는 조선이 미형정부의 최선과, 압살수법으로 초래되는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남겨줄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귀국의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비법입국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한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과 지배주의적 정책,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사실자료들을 들어 폭로하였다.

력사적으로 볼때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복자였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킬수 없는 나라들에 대한 지배에 의거하여 자기의 변명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변명을 일으킨 비법적인 전쟁은 미국정부가 마피아가기업체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소규모적인 기업들이나 개인들보다는 자인과 전략적인 매장지들, 경제부문들을 약탈하는 후안무치한 범죄를 감행하고있으며 저항하는 군인들은 물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은 물론 죽임을 당하는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정벌할수 없는 나라들에 대하여는 정치, 경제적 방법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기를 신봉종교자들의 '약'으로 묘사하면서 자기의 힘을 리용하여 자국의 정치인들을 부패시키고있다. 그러하여 정치인들이 미국경제제도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게 하였으며 결과 국가자원과 공업의 사유화가 실현되고 이것은 미국련합기업체소유자들에게 리익을 가져다주었다.

여러 나라들의 개별적인 회사들은 불공평한 무역협정의 의하여 미국련합기업체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된다. 다른 나라들의 부패한 정치인들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에서 요구하는데로 불필요한 대규모를 받고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를 더 약화시키으로써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게 한다.

지난세기 80년대에 메히코가 겪었던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겪은 경제위기는 회창군기초식품공장이 3중 3대형명품은기를 생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공장은 원료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할수있도록 근대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으로 되었다. 또한 기초식품의 생산과 포장, 출하공정의 현대화는 물론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생산 및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조선은 다른 공장들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소문 없던 이 공장이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자랑될지 되었는가.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일임을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비문제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더욱더 책임있게 하라》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결의목표수행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이 기관차적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동무가 이곳에 지배인으로 왔을 때까지만 해도 공장

명백히 이 나라들의 투항의 산물이다. 메히코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사이에 위치한 지리학적인 우점으로 하여 주요경제국가로서 세계에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공업과 재부의 지배권을 미국기업체들에 넘겨주고 자기 주민들에게는 기약 없는 저로임의 일자리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한 범죄집단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범죄활동의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폭력과 폭행이 만연되게 하고있다. 갈과 마약중독, 살인, 강간, 강탈, 탐닉과 고문이 보편화되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명한 음악가들이 마약독점제들과 그 생활방식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것과 같은 범죄적행위의 대중문화가 만연되어 메히코청년들을 변질시키고있다.

부패와 범죄를 다루는 정치인들과 법관들은 마약집단으로부터 회탄을 받거나 그들이 직접 그 집단의 상임고문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경찰들은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구타하고 있으며 지어 과격하게 때리며 그들을 죽이고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있으나 필요한 의료방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법을 위반한 경찰들이 무죄로 벗어난다 다니고있다. 최근 미국리우의 피고수신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아리조나주의 법관판정원들은 공개적으로 라틴아메리카계 주민들의 민족성과 생김새를 수룩한 인종인종자료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초월한 역할도 맡아 수행한다. 다른 주들도 이를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자기 지역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있다. 미국정부가 대하여 실망케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실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불공평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환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들은 상류층을 위하여 부패한다. 이렇게 돈에 팔린 정부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하는 '귀족'들을 위하여 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의 힘은 부익부, 빈익빈의 타성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다른 나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최하층이나 생산층의 수준으로 쇠퇴해는 반면에 미국상류층의 재부는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억만장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사유화함으로써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러한자들은 세계지배를 추구하면서 상류층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회의 적대분자, 파대당상층자들이다. 때문에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로, 미국의 억만장자형제들인 찰스와 다비드 코크와 같은자들의 리상적인 사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힘에 기초한 폭력이 21세기부터 인민을 보호할 법과 규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

이다. 자기를 지킬수 없는 사람들은 동등대상으로 되거나 마저 그 존재가 무의미하게 사라질것이다.

인간의 삶의 가치는 이미 사유화된 미국의 감옥체계를 통하여 사라졌다. 대다수 감옥들은 개별적인 소유자들과 주주들에게 리움을 가져다주었다. 이자들은 수감자들의 안전과 그들에 대한 치료는 전혀 관심 없이 감옥을 통하여 최대의 리용만을 추구하였다.

범죄폭력단들은 감옥들을 장악하고있으면서 자기들의 위험한 적수들과 자기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자들을 처리하는 장소들로 리용하고있다. 결과 '자본주의의 죽음의 함정'에 감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탄압되고 사회의 위험으로 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에 있는 수감자수의 10분의 1정도가 이들과 사유화된 감옥에 수감되어있으며 감옥사유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리득금은 연간 수익USS에 달한다 하고 있다.

마르티네즈는 또한 미국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강점시기에 국제법을 어기고 '전시'의 간판을 내는 단계들을 군사작전에 참가자들에 대하여서와 미중앙정보국이 '그림자협회'들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 인간의 잠재력을 침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쿠비라에 고도기술을 적용한 '우주비행체'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파괴할수 있으며 전파장애를 조성하여 임의의 나라의 군사 및 상업통신체계를 마비시킬수 있다는것과 사람들의 신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자기 지역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대하여 실망케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실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불공평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환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들은 상류층을 위하여 부패한다. 이렇게 돈에 팔린 정부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하는 '귀족'들을 위하여 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의 힘은 부익부, 빈익빈의 타성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다른 나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최하층이나 생산층의 수준으로 쇠퇴해는 반면에 미국상류층의 재부는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억만장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사유화함으로써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러한자들은 세계지배를 추구하면서 상류층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회의 적대분자, 파대당상층자들이다. 때문에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로, 미국의 억만장자형제들인 찰스와 다비드 코크와 같은자들의 리상적인 사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힘에 기초한 폭력이 21세기부터 인민을 보호할 법과 규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

체포할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그 후 두목은 비법적으로 메히코형무소에 석방시켜 미중앙정보국의 정보제공자로, 자금보장자로 리용하였다.

미중앙정보국 소속회사의 어느 한 비행기가 몇해전에 '세날론업체'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의 1에 달하는 코카인을 싣고 갔다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추락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코스타 리카일것이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때로부터 이곳에서 번성하고있는 가장 리용하지 않는자들을 처리하는 장소들로 리용하고있다. 결과 '자본주의의 죽음의 함정'에 감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탄압되고 사회의 위험으로 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에 있는 수감자수의 10분의 1정도가 이들과 사유화된 감옥에 수감되어있으며 감옥사유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리득금은 연간 수익USS에 달한다 하고 있다.

마르티네즈는 또한 미국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강점시기에 국제법을 어기고 '전시'의 간판을 내는 단계들을 군사작전에 참가자들에 대하여서와 미중앙정보국이 '그림자협회'들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 인간의 잠재력을 침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쿠비라에 고도기술을 적용한 '우주비행체'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파괴할수 있으며 전파장애를 조성하여 임의의 나라의 군사 및 상업통신체계를 마비시킬수 있다는것과 사람들의 신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자기 지역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대하여 실망케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실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불공평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환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들은 상류층을 위하여 부패한다. 이렇게 돈에 팔린 정부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하는 '귀족'들을 위하여 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의 힘은 부익부, 빈익빈의 타성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다른 나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최하층이나 생산층의 수준으로 쇠퇴해는 반면에 미국상류층의 재부는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억만장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사유화함으로써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러한자들은 세계지배를 추구하면서 상류층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회의 적대분자, 파대당상층자들이다. 때문에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로, 미국의 억만장자형제들인 찰스와 다비드 코크와 같은자들의 리상적인 사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힘에 기초한 폭력이 21세기부터 인민을 보호할 법과 규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

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는 건축물에 의한 건설, 목재, 강철, 동제품, 직물, 가죽, 옷, 맛좋은 소다음료 지어 내가 이전에 사용해 보지 못했던 향료식품으로 만든 훌륭한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생산하는 공업을 가지고있으며 우의 실례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업은 발전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조선이 창조한 재부와 경제적잠재력을 고집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경제제때문에 시련을 겪고있다. 만일 그 어떤 나라가 이 경제제때를 반대하여 조선과 무역을 시작하면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무기한 그 나라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은 사회주의세력과 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으로써 인간의 힘을 억누르고 극소수 상류층의 특권을 보호한다.

지구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사회주의사상에 충실한 나라가 없었으며 때문에 나는 조선이 달성한 성과와 모순들을 가능하게 한 현실에 대하여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나는 조선의 령도자들이 사회의 문화적일치를 보호하고 경제와 집단을 결합시키고 사람들을 부정적인 영향들과 악습, 범죄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였는데 대하여 강조하고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구의 99%이상이 성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았으며 훌륭한 감독적인 영향들을 창작할수 있는 영화산업을 건설하였다. 나도 조선에서 TV를 통하여 방영되는 영화들을 직접 보았다.

군대와 인민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가장 조화롭게 일치되어 있으며 이 나라의 군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로 되고있다. 그 어떤 나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자기의 령도와 인민을 제국주의원칙과 미제국주의의 적대적인 영향으로부터 승리적으로 지켜내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들의 손길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에게 부패하는 사회주의의 국가를 건설하며도 인류의 보다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인인민들에게 고무적인 힘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는 자기의 존재형식으로부터 벗어났고 착취적본성

을 추구하고있는 반면에 사회주의는 로동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보장해주고있다. 이와 같은 승고한 사상과 활동은 사회제층의 분리과 재산소유의 불균형,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배격한다.

인민을 사랑하는 정권만이 사회경제적으로 몰락되는 자본주의사회의 국가와 인민을 구원할수 있으며 우리를 명도할수 있다. 세계인민들은 이러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서로 단결해야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이제 기자회견의 끝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당신은 미국의 인권실태와 알고있는 자료들을 폭로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데 왜 조선을 택하였는가 그리고 조선방문후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대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택하게 된것은 조선이 유일하게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을 반대하여 싸우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있는 안전한 나라이기때문이다.

체류일정이 끝나면 베네수엘라에 정치적피난처를 요구할 결심이다.

민중조선사 기자:미국에서 인권보장이 안되고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미국정부가 당신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대답:나는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은 많이 목격했다.

특히 미국의 감옥실태를 보면 사회인권이 얼마나 철박한가를 잘 알게 되었다.

미국사회에서 모든 감옥들은 다 사유화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수감자들이 개조되는것은 사회의 위험으로 되고 또 부패한 인권유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할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감옥들을 통해서 감옥을 운영하는자들뿐만 아니라 수감자까지도 여기서 리움을 얻고있으며 자기들의 적수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로 되고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특히 아리조나주에서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있는것을 많이 보았다.

여기서는 경찰이 인종별로 인종명단을 만들어놓고 이주민들과 소수민족들을 감시하고 적대시하는 행위들을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아리조나주에서

경찰은 이주민이나 국경통제국의 역할까지 탐욕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최근 미국이 조선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 실태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답:지금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인권' 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사실 자기자세를 부정하는것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열렬한 애국자들이나 하는것을 직접 느꼈수 있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협담들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다.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인권' 모략소동은 반사회주의선언이며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신화통신사 기자:지난 12월 9일 미국회 상원에서 미중앙정보국이 레토르의자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답:사실 이것은 늘 감행되고있는 만행들이라고 생각한다.

미중앙정보국은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앙정보국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감옥을 차려놓고 수감자들에게 감옥을 만들어놓고 고문을 하는것은 최근에 나타난것이지 아니라 지난 시기에도 계속 행해졌으며 또 비밀이 아니다.

MS통신사 기자:현재 조선에서 당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곳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고있는것은 없는가.

대답:전혀 없다. 나는 조선에 와서 가장 편하게 인도주의적인 위급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호텔에서 체류하고 있다.

그저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비법적으로 입국을 하였기때문에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였을뿐이다.

나는 평양에 있는 기간 아주 훌륭한 곳들을 참관하였다.

나는 체류를 통해서 조선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더욱 폭폭히 알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가장 훌륭한 나라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행복하며 그리고 애국주의적이며 명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우면서도 희한한 목격이었다.

총련 조선선보사 기자:조선에 체류하면서 목격하건, 느낀점은 무엇인가.

대답: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이 매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나라이며 인민들이 아주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공업이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자제의 힘으로 인민들을 위한 제품들과 자동차, 기관차 등 모든것을 생산하고 있다.

경제적인 난관을 겪고있다면 자제의 문제점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봉쇄속에조선이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방문을 통해 정말 훌륭한 감동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르티네즈는 가장 관대하게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면서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키며 자기 인민, 전세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의 고무적인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의 모든 정부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지도자들과 민족, 인민들에게 것처럼 커다란 위협을 주는 미국의 극비무기들에 대하여 용감한 투쟁을 돌림으로써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나가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회창군기초식품공장이 3중 3대형명품은기를 생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공장은 원료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할수있도록 근대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으로 되었다. 또한 기초식품의 생산과 포장, 출하공정의 현대화는 물론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생산 및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조선은 다른 공장들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소문 없던 이 공장이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자랑될지 되었는가.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일임을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비문제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더욱더 책임있게 하라》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결의목표수행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이 기관차적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동무가 이곳에 지배인으로 왔을 때까지만 해도 공장

명백히 이 나라들의 투항의 산물이다. 메히코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사이에 위치한 지리학적인 우점으로 하여 주요경제국가로서 세계에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공업과 재부의 지배권을 미국기업체들에 넘겨주고 자기 주민들에게는 기약 없는 저로임의 일자리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한 범죄집단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범죄활동의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폭력과 폭행이 만연되게 하고있다. 갈과 마약중독, 살인, 강간, 강탈, 탐닉과 고문이 보편화되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명한 음악가들이 마약독점제들과 그 생활방식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것과 같은 범죄적행위의 대중문화가 만연되어 메히코청년들을 변질시키고있다.

부패와 범죄를 다루는 정치인들과 법관들은 마약집단으로부터 회탄을 받거나 그들이 직접 그 집단의 상임고문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경찰들은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구타하고 있으며 지어 과격하게 때리며 그들을 죽이고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있으나 필요한 의료방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법을 위반한 경찰들이 무죄로 벗어난다 다니고있다. 최근 미국리우의 피고수신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아리조나주의 법관판정원들은 공개적으로 라틴아메리카계 주민들의 민족성과 생김새를 수룩한 인종인종자료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초월한 역할도 맡아 수행한다. 다른 주들도 이를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자기 지역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있다. 미국정부가 대하여 실망케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실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불공평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환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들은 상류층을 위하여 부패한다. 이렇게 돈에 팔린 정부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하는 '귀족'들을 위하여 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의 힘은 부익부, 빈익빈의 타성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다른 나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최하층이나 생산층의 수준으로 쇠퇴해는 반면에 미국상류층의 재부는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억만장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사유화함으로써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러한자들은 세계지배를 추구하면서 상류층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회의 적대분자, 파대당상층자들이다. 때문에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로, 미국의 억만장자형제들인 찰스와 다비드 코크와 같은자들의 리상적인 사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힘에 기초한 폭력이 21세기부터 인민을 보호할 법과 규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

체포할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그 후 두목은 비법적으로 메히코형무소에 석방시켜 미중앙정보국의 정보제공자로, 자금보장자로 리용하였다.

미중앙정보국 소속회사의 어느 한 비행기가 몇해전에 '세날론업체'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의 1에 달하는 코카인을 싣고 갔다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추락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코스타 리카일것이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때로부터 이곳에서 번성하고있는 가장 리용하지 않는자들을 처리하는 장소들로 리용하고있다. 결과 '자본주의의 죽음의 함정'에 감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탄압되고 사회의 위험으로 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에 있는 수감자수의 10분의 1정도가 이들과 사유화된 감옥에 수감되어있으며 감옥사유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리득금은 연간 수익USS에 달한다 하고 있다.

마르티네즈는 또한 미국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강점시기에 국제법을 어기고 '전시'의 간판을 내는 단계들을 군사작전에 참가자들에 대하여서와 미중앙정보국이 '그림자협회'들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 인간의 잠재력을 침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쿠비라에 고도기술을 적용한 '우주비행체'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파괴할수 있으며 전파장애를 조성하여 임의의 나라의 군사 및 상업통신체계를 마비시킬수 있다는것과 사람들의 신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자기 지역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대하여 실망케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실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불공평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환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들은 상류층을 위하여 부패한다. 이렇게 돈에 팔린 정부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하는 '귀족'들을 위하여 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의 힘은 부익부, 빈익빈의 타성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다른 나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최하층이나 생산층의 수준으로 쇠퇴해는 반면에 미국상류층의 재부는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억만장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사유화함으로써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러한자들은 세계지배를 추구하면서 상류층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회의 적대분자, 파대당상층자들이다. 때문에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로, 미국의 억만장자형제들인 찰스와 다비드 코크와 같은자들의 리상적인 사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힘에 기초한 폭력이 21세기부터 인민을 보호할 법과 규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

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는 건축물에 의한 건설, 목재, 강철, 동제품, 직물, 가죽, 옷, 맛좋은 소다음료 지어 내가 이전에 사용해 보지 못했던 향료식품으로 만든 훌륭한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생산하는 공업을 가지고있으며 우의 실례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업은 발전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조선이 창조한 재부와 경제적잠재력을 고집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경제제때문에 시련을 겪고있다. 만일 그 어떤 나라가 이 경제제때를 반대하여 조선과 무역을 시작하면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무기한 그 나라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은 사회주의세력과 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으로써 인간의 힘을 억누르고 극소수 상류층의 특권을 보호한다.

지구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사회주의사상에 충실한 나라가 없었으며 때문에 나는 조선이 달성한 성과와 모순들을 가능하게 한 현실에 대하여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나는 조선의 령도자들이 사회의 문화적일치를 보호하고 경제와 집단을 결합시키고 사람들을 부정적인 영향들과 악습, 범죄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였는데 대하여 강조하고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구의 99%이상이 성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았으며 훌륭한 감독적인 영향들을 창작할수 있는 영화산업을 건설하였다. 나도 조선에서 TV를 통하여 방영되는 영화들을 직접 보았다.

군대와 인민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가장 조화롭게 일치되어 있으며 이 나라의 군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로 되고있다. 그 어떤 나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자기의 령도와 인민을 제국주의원칙과 미제국주의의 적대적인 영향으로부터 승리적으로 지켜내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들의 손길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에게 부패하는 사회주의의 국가를 건설하며도 인류의 보다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인인민들에게 고무적인 힘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는 자기의 존재형식으로부터 벗어났고 착취적본성

을 추구하고있는 반면에 사회주의는 로동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보장해주고있다. 이와 같은 승고한 사상과 활동은 사회제층의 분리과 재산소유의 불균형,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배격한다.

인민을 사랑하는 정권만이 사회경제적으로 몰락되는 자본주의사회의 국가와 인민을 구원할수 있으며 우리를 명도할수 있다. 세계인민들은 이러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서로 단결해야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이제 기자회견의 끝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당신은 미국의 인권실태와 알고있는 자료들을 폭로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데 왜 조선을 택하였는가 그리고 조선방문후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대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택하게 된것은 조선이 유일하게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을 반대하여 싸우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있는 안전한 나라이기때문이다.

체류일정이 끝나면 베네수엘라에 정치적피난처를 요구할 결심이다.

민중조선사 기자:미국에서 인권보장이 안되고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미국정부가 당신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대답:나는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은 많이 목격했다.

특히 미국의 감옥실태를 보면 사회인권이 얼마나 철박한가를 잘 알게 되었다.

미국사회에서 모든 감옥들은 다 사유화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수감자들이 개조되는것은 사회의 위험으로 되고 또 부패한 인권유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할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감옥들을 통해서 감옥을 운영하는자들뿐만 아니라 수감자까지도 여기서 리움을 얻고있으며 자기들의 적수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로 되고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특히 아리조나주에서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있는것을 많이 보았다.

여기서는 경찰이 인종별로 인종명단을 만들어놓고 이주민들과 소수민족들을 감시하고 적대시하는 행위들을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아리조나주에서

경찰은 이주민이나 국경통제국의 역할까지 탐욕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최근 미국이 조선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 실태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답:지금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인권' 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사실 자기자세를 부정하는것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열렬한 애국자들이나 하는것을 직접 느꼈수 있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협담들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다.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인권' 모략소동은 반사회주의선언이며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신화통신사 기자:지난 12월 9일 미국회 상원에서 미중앙정보국이 레토르의자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답:사실 이것은 늘 감행되고있는 만행들이라고 생각한다.

미중앙정보국은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앙정보국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감옥을 차려놓고 수감자들에게 감옥을 만들어놓고 고문을 하는것은 최근에 나타난것이지 아니라 지난 시기에도 계속 행해졌으며 또 비밀이 아니다.

MS통신사 기자:현재 조선에서 당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곳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고있는것은 없는가.

대답:전혀 없다. 나는 조선에 와서 가장 편하게 인도주의적인 위급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호텔에서 체류하고 있다.

그저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비법적으로 입국을 하였기때문에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였을뿐이다.

나는 평양에 있는 기간 아주 훌륭한 곳들을 참관하였다.

나는 체류를 통해서 조선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더욱 폭폭히 알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가장 훌륭한 나라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행복하며 그리고 애국주의적이며 명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우면서도 희한한 목격이었다.

총련 조선선보사 기자:조선에 체류하면서 목격하건, 느낀점은 무엇인가.

대답: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이 매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나라이며 인민들이 아주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공업이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자제의 힘으로 인민들을 위한 제품들과 자동차, 기관차 등 모든것을 생산하고 있다.

경제적인 난관을 겪고있다면 자제의 문제점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봉쇄속에조선이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방문을 통해 정말 훌륭한 감동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르티네즈는 가장 관대하게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면서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키며 자기 인민, 전세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의 고무적인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의 모든 정부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지도자들과 민족, 인민들에게 것처럼 커다란 위협을 주는 미국의 극비무기들에 대하여 용감한 투쟁을 돌림으로써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나가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회창군기초식품공장이 3중 3대형명품은기를 생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공장은 원료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할수있도록 근대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으로 되었다. 또한 기초식품의 생산과 포장, 출하공정의 현대화는 물론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생산 및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조선은 다른 공장들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소문 없던 이 공장이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자랑될지 되었는가.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일임을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비문제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더욱더 책임있게 하라》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결의목표수행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이 기관차적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동무가 이곳에 지배인으로 왔을 때까지만 해도 공장

회창군기초식품공장이 3중 3대형명품은기를 생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공장은 원료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할수있도록 근대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보배공장으로 되었다. 또한 기초식품의 생산과 포장, 출하공정의 현대화는 물론 통합생산체계에 의한 생산 및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조선은 다른 공장들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소문 없던 이 공장이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자랑될지 되었는가.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일임을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비문제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형명품은기생취운동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더욱더 책임있게 하라》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결의목표수행에서 행정경제일꾼들이 기관차적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동무가 이곳에 지배인으로 왔을 때까지만 해도 공장

명백히 이 나라들의 투항의 산물이다. 메히코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사이에 위치한 지리학적인 우점으로 하여 주요경제국가로서 세계에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공업과 재부의 지배권을 미국기업체들에 넘겨주고 자기 주민들에게는 기약 없는 저로임의 일자리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한 범죄집단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범죄활동의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폭력과 폭행이 만연되게 하고있다. 갈과 마약중독, 살인, 강간, 강탈, 탐닉과 고문이 보편화되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명한 음악가들이 마약독점제들과 그 생활방식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것과 같은 범죄적행위의 대중문화가 만연되어 메히코청년들을 변질시키고있다.

부패와 범죄를 다루는 정치인들과 법관들은 마약집단으로부터 회탄을 받거나 그들이 직접 그 집단의 상임고문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경찰들은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구타하고 있으며 지어 과격하게 때리며 그들을 죽이고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있으나 필요한 의료방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법을 위반한 경찰들이 무죄로 벗어난다 다니고있다. 최근 미국리우의 피고수신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아리조나주의 법관판정원들은 공개적으로 라틴아메리카계 주민들의 민족성과 생김새를 수룩한 인종인종자료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초월한 역할도 맡아 수행한다. 다른 주들도 이를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자기 지역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있다. 미국정부가 대하여 실망케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실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불공평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환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들은 상류층을 위하여 부패한다. 이렇게 돈에 팔린 정부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하는 '귀족'들을 위하여 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의 힘은 부익부, 빈익빈의 타성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다른 나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최하층이나 생산층의 수준으로 쇠퇴해는 반면에 미국상류층의 재부는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억만장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사유화함으로써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러한자들은 세계지배를 추구하면서 상류층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회의 적대분자, 파대당상층자들이다. 때문에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로, 미국의 억만장자형제들인 찰스와 다비드 코크와 같은자들의 리상적인 사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힘에 기초한 폭력이 21세기부터 인민을 보호할 법과 규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

체포할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그 후 두목은 비법적으로 메히코형무소에 석방시켜 미중앙정보국의 정보제공자로, 자금보장자로 리용하였다.

미중앙정보국 소속회사의 어느 한 비행기가 몇해전에 '세날론업체'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의 1에 달하는 코카인을 싣고 갔다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추락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코스타 리카일것이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때로부터 이곳에서 번성하고있는 가장 리용하지 않는자들을 처리하는 장소들로 리용하고있다. 결과 '자본주의의 죽음의 함정'에 감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탄압되고 사회의 위험으로 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에 있는 수감자수의 10분의 1정도가 이들과 사유화된 감옥에 수감되어있으며 감옥사유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리득금은 연간 수익USS에 달한다 하고 있다.

마르티네즈는 또한 미국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강점시기에 국제법을 어기고 '전시'의 간판을 내는 단계들을 군사작전에 참가자들에 대하여서와 미중앙정보국이 '그림자협회'들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 인간의 잠재력을 침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이 쿠비라에 고도기술을 적용한 '우주비행체'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파괴할수 있으며 전파장애를 조성하여 임의의 나라의 군사 및 상업통신체계를 마비시킬수 있다는것과 사람들의 신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자기 지역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대하여 실망케 하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실례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불공평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환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들은 상류층을 위하여 부패한다. 이렇게 돈에 팔린 정부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지하는 '귀족'들을 위하여 일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의 힘은 부익부, 빈익빈의 타성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다른 나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미국의 최하층이나 생산층의 수준으로 쇠퇴해는 반면에 미국상류층의 재부는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러한 억만장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사유화함으로써 인민들을 직접 통제하는 '왕'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러한자들은 세계지배를 추구하면서 상류층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회의 적대분자, 파대당상층자들이다. 때문에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로, 미국의 억만장자형제들인 찰스와 다비드 코크와 같은자들의 리상적인 사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악몽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힘에 기초한 폭력이 21세기부터 인민을 보호할 법과 규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

적인 특징을 가지고있는 건축물에 의한 건설, 목재, 강철, 동제품, 직물, 가죽, 옷, 맛좋은 소다음료 지어 내가 이전에 사용해 보지 못했던 향료식품으로 만든 훌륭한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생산하는 공업을 가지고있으며 우의 실례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업은 발전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조선

#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통일의 대양

# 대결광신자들의 지겨운 낙두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너무도 뜻밖에도 이 나라 천만군민이 가슴수 없는 상실의 아픔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지대로온 어버이들 목매어 부르던 그 때로부터 3년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후에는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애국투쟁의 불길로 승화시켜주는 우리 민족이 뼈에 새긴 고귀한 유산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평등과 김정일동지께서 애국의 대명제, 자주통일의 절대리념으로 거머쥐는 가슴속에서 새겨주신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유일한 승리의 표대이며 민족자주통일완성을 위한 전진행진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해야 할 애국의 구호라는 것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우리 민족은 풍파사나운 역사를 헤쳐오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대안결의의 귀중함을 뼈에 새긴 민족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나라의 자주적 현실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셨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로 하여 평등도 작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우리 조국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당당히 맞서 자주적존엄을 떨치고 선군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유일한 승리의 표대이며 민족자주통일완성을 위한 전진행진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해야 할 애국의 구호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에 열어주신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가 적극 실현되었다. 북남사이에는 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고 북남대화는 명실공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풀어나가게 되었고, 대규모의 남조선연인사 대표단의 평양방문이 실현되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와 배양이 면이아 진행되었으며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편철되고 바다길, 하늘길이 열리는 장대한 사변들이 일어났다.

은 거대한 틀을 틀어잡고 있고 새 세계를 격동시킨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의 가치임을 실증해주었다.

참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새겨 안을수록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천품을 지니시고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열정으로 한생을 불태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업적공포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결실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불변의 강령으로 내세우고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와 자주통일위업을 완성하려는 것은 해내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위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정예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신다. 정예한 대원수님의 영도는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겨오는 필승의 힘이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고귀한 한생을 바쳐 남기신 애국유산이 있고 대원수님들의 뜻을 드림없이 구현해나가는 정예한 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리 호 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도전으로 북남관계파국이 심화될수록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경이적인 성과들로 환희에 들었던 6.15통일시대를 전인민통일애국의 기치인 우리민족끼리리의 귀중함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염원이었던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길에서 친리해안의 예지와 열화같은 민족애로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필승의 가치로 세우셨다는 민족자주 불멸애국영웅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자주의 가치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백박자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최고제현자, 대외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민족관, 통일관이 절대성된 6.15통일시대의 자랑한 시대어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사상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가장 숭고한 애국에

## 남조선어선 침몰, 각계가 진상규명을 요구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경 남조선어선 《501-오룡》호 로가리아와 가까운 베링해협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도중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항에 바다물이 들어오면서 기둥이 전 선체를 다시 세우려고 방향전환을 시도했지만 끝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에는 11명의 남조선선원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 국적의 선원 60명이 타고있었다. 사고당일 남조선선원 1명을 포함하여 8명이 구조되었다.

지난 그중 남조선선원은 끝내 숨지었다. 나머지 52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되었는데 12월 5일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25명이며 실종자는 28명에 달하였다. 언론들은 4일 현재까지 남조선선원 6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남조선당국이 현지에서 신속대응조를 파견한다. 함대대책회의를 진행한 다 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여론은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01-오룡》호 선원들의 대다수가 법조승선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보고한다. 우선 선장부리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관장도 2등항해사도 자격이 없었다. 꼭 필요한 승선인원인 2등기판사와 3등기판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았다고 한다. 배의 무게와 기판능력에 따라 적부모도 요구되는 자격증과 승선인원이 규정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예 무시되었다. 이에 대해 출항승인을 해준 부산해양항만청을 비롯한 피폭당국측은 많은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바람에 배들이 법조승선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하였다.

어른들은 이번 사고 역시 《세월호》침몰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폭당국이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기자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 미국의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시위와 집회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 당국의 부당한 처사 반대

이탈랜드의 더블린에서 10일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는 10만명 이상의 각계중 공중

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다음해부터 수도를 리용하는 새세대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계획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어 그들은 광장에 시 집회를 열고 그러한 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시위와 집회로 자동차운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된다.

유엔기사와 인권전문가들이 미국에서 피폭을 보고 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을 종식시킬것을 주장해나서고 있다. 5일 유엔인권고등판무판사 무소 대변인은 미국의 뉴욕재판소가 흑인남성을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내린 불기소처분으로 초배열 후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미국인들이 사법 및 법집행체도를 전혀 침화하지 않고있다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미당국에 촉구하였다. 같은 날 유엔 소수민족문제담당 특별보고관은 피수사자를 구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명백히 유색의 증거가 존재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인부력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비롯한 소수민족공동체에서 발생한 지금 그러한 결정들은 형법제정목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하여서 법률상의 우려들을 자아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인권전문가들은 대규모항의행동들을 야기시킨 미국법집행관계자들의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종식시키고 경찰들의 치사사건기사를 용서하는 법을 검토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피수사자와 뉴욕에서 집행된 흑인살해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 미국의 수감자학대행위 준벌히 규탄

전 미중양성 북극 요원 스노우언이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인권단체들이 조직한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미국의 야만적인 고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특수기판들에 의한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발표된 미상인의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고문행위를 한 미국의 범죄는 정당화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상인이 진행한 조사결과를 치를 떨고있고 있다. 그 모든 일은 미행정부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의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는 그리스근로자들

이탈랜드의 더블린에서 10일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는 10만명 이상의 각계중 공중

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다음해부터 수도를 리용하는 새세대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계획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어 그들은 광장에 시 집회를 열고 그러한 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시위와 집회로 자동차운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된다.

유엔기사와 인권전문가들이 미국에서 피폭을 보고 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을 종식시킬것을 주장해나서고 있다. 5일 유엔인권고등판무판사 무소 대변인은 미국의 뉴욕재판소가 흑인남성을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내린 불기소처분으로 초배열 후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미국인들이 사법 및 법집행체도를 전혀 침화하지 않고있다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미당국에 촉구하였다. 같은 날 유엔 소수민족문제담당 특별보고관은 피수사자를 구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명백히 유색의 증거가 존재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인부력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비롯한 소수민족공동체에서 발생한 지금 그러한 결정들은 형법제정목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하여서 법률상의 우려들을 자아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인권전문가들은 대규모항의행동들을 야기시킨 미국법집행관계자들의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종식시키고 경찰들의 치사사건기사를 용서하는 법을 검토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피수사자와 뉴욕에서 집행된 흑인살해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인종차별을 종식시킬것을 주장

유엔기사와 인권전문가들이 미국에서 피폭을 보고 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을 종식시킬것을 주장해나서고 있다. 5일 유엔인권고등판무판사 무소 대변인은 미국의 뉴욕재판소가 흑인남성을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내린 불기소처분으로 초배열 후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미국인들이 사법 및 법집행체도를 전혀 침화하지 않고있다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미당국에 촉구하였다. 같은 날 유엔 소수민족문제담당 특별보고관은 피수사자를 구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명백히 유색의 증거가 존재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인부력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비롯한 소수민족공동체에서 발생한 지금 그러한 결정들은 형법제정목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하여서 법률상의 우려들을 자아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인권전문가들은 대규모항의행동들을 야기시킨 미국법집행관계자들의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종식시키고 경찰들의 치사사건기사를 용서하는 법을 검토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피수사자와 뉴욕에서 집행된 흑인살해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 수감자학대행위 준벌히 규탄

전 미중양성 북극 요원 스노우언이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인권단체들이 조직한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미국의 야만적인 고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특수기판들에 의한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발표된 미상인의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고문행위를 한 미국의 범죄는 정당화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상인이 진행한 조사결과를 치를 떨고있고 있다. 그 모든 일은 미행정부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의

## 미국 수감자학대행위 준벌히 규탄

전 미중양성 북극 요원 스노우언이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인권단체들이 조직한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미국의 야만적인 고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특수기판들에 의한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발표된 미상인의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고문행위를 한 미국의 범죄는 정당화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상인이 진행한 조사결과를 치를 떨고있고 있다. 그 모든 일은 미행정부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의

## 미국 수감자학대행위 준벌히 규탄

전 미중양성 북극 요원 스노우언이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인권단체들이 조직한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미국의 야만적인 고문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특수기판들에 의한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발표된 미상인의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고문행위를 한 미국의 범죄는 정당화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상인이 진행한 조사결과를 치를 떨고있고 있다. 그 모든 일은 미행정부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의

## 오늘의 세계

얼마전부터 30여개에 달하는 인도주의단체들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청원운동을 시작하였다. 극심한 생활고를 시달리는 피난민들을 위한 쌀과 의복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시위를 벌이자는 취지였다. 그 만큼 국제적으로 피난민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및 인종간 충돌과 분쟁이 시달려오고있는 민주공화국에서 피난민수는 270만명, 남부수단에서는 180만명 이상에 달한다. 올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살길을 찾아 지중해를 건너간 피난민수는 3년전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 피난민문제 해결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어왔다. 1951년에 유엔은 피난민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가지고 피난민들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2000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6월 20일을 세계피난민의 날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피난민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빈민이 일

어지고있는 분쟁과 폭력행위, 자연재해 등은 피난민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있다. 보다 심각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세기를 이어오며 강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 지배와 간섭적행위이다.

아프리카대륙을 놓고보자. 이 지역 나라들은 지난 시기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그 어느 대륙보다도 중족 및 민족분쟁, 국경분쟁 등이 시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분쟁문제해결을 운운하며 그것을 아프리카대륙에 대한 개간성과 지배주의 야망실현의 공간으로 이용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고 경제개발잠재력이 큰 아프리카대륙을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해 이 지역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들은 유희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나라들에 서방식《민주주의》를 강요하는 등 반분쟁을 조장해왔으며 내정간섭의 구실을 만들고 그를 통해 자들의 침략적, 약탈적목적은 손쉽게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무력침공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결국 국제적인 인권문제는 날로 악화되고있다.

중동사태가 그것을 림증해준다. 《반테로전》의 간판 밑에 미국이 강행한 이라크침략전쟁은 이 나라를 테러와 총돌, 혼란과 무질서의 판무장으로 만들었다.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이래 이라크에서 지금까지 수 백만명의 피난민이 생겨났다. 《이슬람교국가》를 소망하던 미국주도자가 벌이자는 수리아에 대한 공습은 또 어떠한가.

미국은 최근년간 내전이 벌어지고있는 수리아에 무력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수도해했다. 화학무기를 수리아정부가 사용하였다는 설도 류포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것을 실현할수 없었다.

미국이 《이슬람교국가》가 이라크형내는 물론 수리아의 일부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대하자 기나웠다는듯이 수리아공습을 기도한다는 결코 우연한것으로 볼수 없다.

광범한 여론은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두고 《반테로전》의 간판 밑에 이 주권국가를 짓밟아버리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라산에 기초한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1000만명을 넘는 수리아의 피난민수는 미국의 국경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세계앞에 독려했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피난민문제는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 사회경제개발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분쟁문제, 피난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본사기자

## 스스로 빚어낸 유럽동맹의 우환거리

트리아, 마자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지나게 되어있는 이 판의 년간수송량은 630억t이다.

2018년까지 완공할것을 목표로 한 《남부호름》가스수송관건설을 추진한다고 선언한것이다.

판의 가스수송관건설은 로씨야와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리해관계의 일치에 따라 시작된것이었다.

로씨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연가스생산 및 수출국이다. 반면에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전통적으로 로씨야가스를 수입해왔다. 천연가스가 맺어진 이러한 관계는 의례히 쌍방을 경제적협력으로 떠밀어왔다. 그런데 2009년 1월 쌍방사이의 경제관계에 그늘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스수송관을 둘러싸고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에서 분쟁이 터진것이었다.

로씨야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를 거쳐 수송관으로 공급받던 유럽나라들은 분쟁의 여파를 특후히 체험하였다. 가스공급의 중단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었는가 하면 강추위로 얼어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유럽동맹의 적극적인 중재도 분쟁이 인차 막을 내렸지만 사람들에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스수입국들은 예례로써 불안정한 공급원천과 통과객적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였다.

로씨야는 에너지수출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여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는 《남부호름》가스수송관건설이 사실상 개시되었다. 로씨야로부러 흑해를 지나 벨라리아, 스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피수사자를 계기로 미국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항의시위의 일환으로 미련방의회

미국 각지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중 공중의 시위와 집회가 연일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워싱턴에서 흑인들을 마구 살해하는 백인